

광주시 최대 시책 '차이나 프렌들리' 걸돈다

中 문화원 분원 유치 등 지지부진 ... 특화거리는 포기 선언적·추상적이고 컨트롤 타워 부재... 재검토 필요

민선 6기 최대 현안 시책 중 하나인 '중국과 친해지기(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이 너무 선언적·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 의원은 12일 제24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국 친해지기 사업은 구체성 결여,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차이나 프렌들리 사

업'은 운장현 시장 취임 이후 핵심 현안사업으로, 대중국 한류관광 기반 구축 등 6개 추진 전략에 광주권 대중국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중국 문화원 분원 건립, 중국 특화거리 조성, 대중국 의료관광 유치, 정음성 사적지 정비 등 상당수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포기하는 등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를 위

해 추진한 중국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아예 접었다.

중국 문화원 분원 유치는 중국과 한국의 자존심 싸움 틈바구니에 끼여 광주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개설 주체인 중국 측에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 측은 광주시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분원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내 면세점 유치도 두 번 탈락한 데 이어 (주)신세계백화점의 특급호텔 및 복합쇼핑몰 참여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번수가 적지 않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2013년 대비 2.6%가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은

17%나 줄어 중국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 일부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경제·투자분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등 중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전남 시·군 주장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 지역 일선 시·군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12일 오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일선 시·군은 "현행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14.5%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3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시·군을 살펴보면 진도의 재정자립도는 4.6%에 불과하고 신안은 4.8%, 고흥 5.4%, 보성 5.7%, 완도 5.9%, 장흥 6.0% 등 22개 시·군 중 13곳이 10% 이하로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 대다수가 재정수입의 40% 이상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사회복지는 증가해 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전남 지역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권과 비교해 복지수혜 대상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행·재정적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만큼 인구수 중심의 교부세 개편을 지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정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20.1%, 독거노인비율은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시·군의 사회복지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15년 23.6%로 2%가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료 독감 예방접종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된 1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이번 접종은 16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비 투자 규정 어겨 국비 73억 반납한 광주시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 등 2건
안일한 행정에 이자부담 떠안아

광주시가 준공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에 투입한 70억원대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지방 재정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비부터 따내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 탓으로,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어려운 살림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의원은 12일 제243회 시정질문에서 "완료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투입한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시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반납 통보 경위와 대책을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광주시는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비 25억원과 이자 1억원,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국비 45억원과 이자 3억원 등 모두 73억원을 올해 정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반환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각 35억원과 50억원이며 이 액수에 같은 금액을 시비가 부담하는 이른바 5대5 매칭펀드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각 사업에 10억원, 5억원만 투입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들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완료돼 국비 반납에 따른 상실감이 더 크다

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사업 계획에서 최종 결재까지 누구 하나 이런 일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의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비 관련 정책 입안이나 사업 추진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타당성과 재정상황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한)2010년 당시에는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저조해도 국비를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환경부 일제점검 등을 통해 국비 반납이 결정됐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섬진강 연어 올해는 몇마리 돌아올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내달말까지 회귀량 조사

섬진강 연어, 이번에는 몇 마리나 귀환할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섬진강 어미연어 연구와 방류효과 조사 등을 위해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북태평양 어미연어 자원량 조사를 실시한다.

섬진강 연어 회귀량 조사는 광양 다압면 고사리 지선과 경남 하동 약양면 평사리 지선에 그물을 설치하고 산란을 위해 강 상류로 올라가는 어미 연어를 포획해 이뤄진다. 연령, 성 성숙도, 개체 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산란 유도를 위해 상류 지역에 자연방류하고 일부는 연어 연구 및 어린 연어 증모 생산을 위해 생태관 연구시설로 옮겨 관리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섬진강에 639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다. 방류 초기 되돌아오는 어미연어는 10여 마리에 그쳤으나 지난해 188마리로 늘어나는 등 되돌아오는 어미 연어의 자원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자원량 조사결과 10년간 돌아온 연어는 2035마리다. 올해는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는 10월 중순께 연어가 본격적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은 연어가 회귀하는 최남단에 위치한 연어 산란장이다. 이듬해 방류된 어린 연어는 일본 북해도를 거쳐 북태평양과 북극해에서 3~5년 동안 자라 어미로 성장한 후 산란기인 10~11월이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모전회귀) 산란 후 생을 마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포획한 어미 연어로부터 수정란을 최대한 확보해 내년 3월 60만 마리 이상의 어린 연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 8억 공공목적 활용

광주시가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이 지역의 교통카드 선수금은 69억 5000여만원이며, 이자는 8억7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70%인 71억원 가량은 시와 버스조합에서, 30%인 7억원 가량은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페이시스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선불 교통카드 구입자가 충전한 금액 중 쓰고 남거나 카드 분실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액수 등을 포함한다. 선수금 가운데 카드 분실로 인해 영구히 선수금으로 남은 고정 선수금은 3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통해 충전선수금 이자 수익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부산시도 교통카드 잔액 찾아주기 사업과 함께 장기 미사용 충전금 등으로 교통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도 잔액 돌려주기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상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자 금융거래법에서 환급청구 시 지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소멸시효, 관리방법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지만, 선수금 이자 중 일부를 교통복지 증진에 활용하면 다른 시·도 사례는 있다"며 "선수금 이자 일부를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등 한·일 8개 시도현 스포츠 교류 등 추진

한국과 일본 해협 연안의 8개 시·도·현은 12일 스포츠진흥과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전남, 부산, 경남, 제주와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8개 시·도·현의 시장과 지사는 이날 오후 사가현에서 열린 제24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의 공동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양국의 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

한 교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스포츠진흥과 교류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되, 다수의 참여가 기대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에서 열리는 '2016 세계진환경디자인박람회'와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각 시도현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healingfood.hwasun.go.kr

2015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Hwasun Healing Food Festival 2015

10.22(목) ~ 10.25(일) [4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일일

& 도심속 국화향연

10.22(목) ~ 11.01(일) [11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일일

주최 화순군 | 주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남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 meo 환경부